

보도시점 2026.6.15.(월) 11:00 &lt; 6.16.(화) 조간 &gt; 배포 2026. 6. 12.(금)

## 통상교섭본부장, 캄보디아 쑤 찬톨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 한-캄보디아 FTA, 공적개발원조,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강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5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쑤 찬톨(Sun chanthol) 캄보디아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인천에서 개최된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로드쇼’를 계기로 방한한 쑤 찬톨 부총리 및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제1부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 및 경제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양자 경제 협력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 본부장은 ‘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24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교역액, 백만불) ('21) 966 ('22) 1,051 ('23) 1,052 ('24) 1,163 ('25) 1,197

여 본부장은 또한 '23년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식품가공분야 TASK\* 센터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및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 등 산업부의 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을 공유하였다. 쑤 찬톨 부총리는 한국의 ODA 사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하였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개도국 생산현장 기술지원 ODA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으로 최종 성사된 대한민국 제1호 산업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승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린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로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으로 국내 1호 사업 성사(25.7.)

정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와의 지속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710)
		담당자	주무관	윤유진 (044-203-5715)

